

## 가는 데마다 화두

1천 2백1 공안(公案)은 죽어버린 것이다. 그것 하나하나 엮매어 있다면 거기에 썩은 송장들만 준비하리라.

세상의 공안이 어디 당송(唐宋)의 그것만이겠는가. 어디를 가나 공안은 잉잉거린다. 마치 꽃땀을 에워싸고 있는 별들의 소리로.

그리하여 내가 살아있을진대 나 화두 한 놈도 살아서 펄펄 날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화두를 꼭 틀어쥐는 바가 능사 아니리라. 놓쳐버려라. 물 속으로 유유히 달아나는 가물치 한 마리의 그 자유분방한 힘의 율동이야말로 천연의 선정(禪定) 아니런가. 놓쳐라.

그러나 선을 앓는다느니 눕는다느니 머문다느니 어디로 걸어간다느니 하지 말지어다.

아니, 앓을 터이면 앓아라. 자빠지고 싶거든 자빠지거라. 갈 테면 가고 올 테면 오너라. 가는 데마다 화두에 꼭 막혀 움작 달짝 할 수 없어야, 바로 그 꼭 막힌 화두를 뚫어 천리의 바람으로 내달려 갈 일.

우리 이 철수의 붓 가는 대로 칼끝 닿는 대로 노래한 것 그려진 것을 보노라면 그야말로 산과 들과 저자와 어느 쪽굴형 할 것 없이 거기 금방 태어난 화두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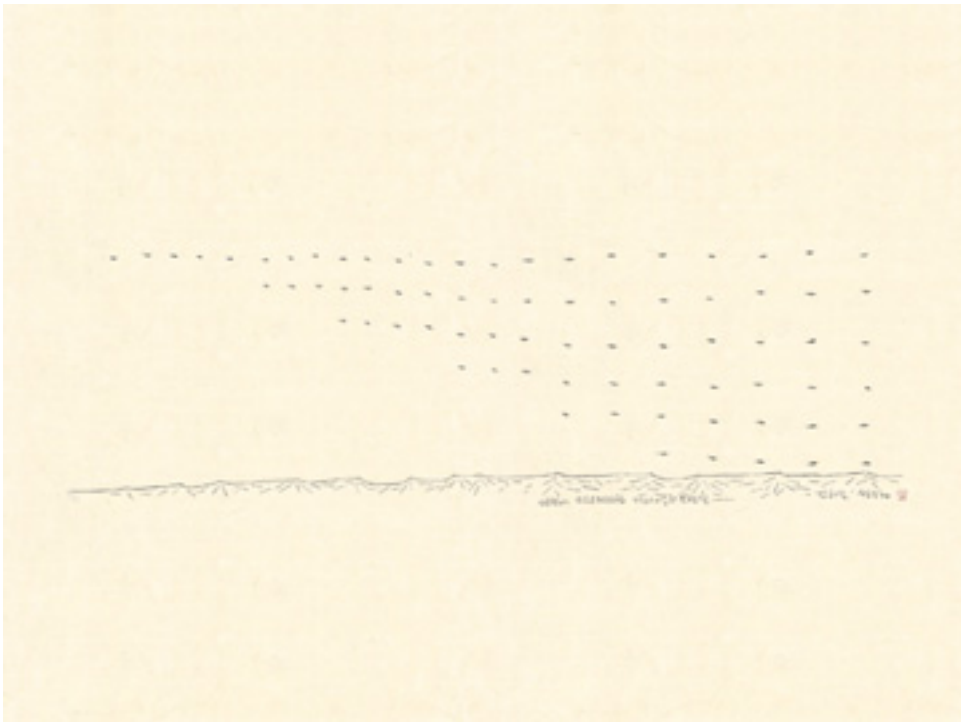
‘미간을 빨랫줄 삼아서 마음 가져다 널어보라...’

원 세상에, 이런 이미지 얼마나 무서운 노릇인가. 그것은 옛 사람 미간의 백호광(白毫光)을 능히 벗 삼고 있으렸다.



‘와! 굉장한 소나기가 지나갔다 개울이 서서 흐르는 듯’

이것도 제법이다. 노래 한 마디보다 더 좋은 것은 그의 칼춤씨의 검술(劍術)에서 일탈한 소나기 빗줄기와 개울물의 힘이 한데 어우러진 장관이다.



‘창천에 치렁치렁한 기러기들의 북행길’

여기서 ‘.....의 복행길’은 공연스럽다. 하지만 ‘단풍’ 좀 들여다보아. 잎새 하나하나가 이렇게 눈 씻고 어여쁘다니.



어찌 그뿐이겠는가. 천의무봉과 무봉이 어린 딸내미로 하여금 하나로다. 그렇지 그렇구말구



‘세상에 우산 쓰는 짐승 사람밖에 없다.’

사람이 짐승임을 이렇게 절묘하게 시리 드러낼 줄이야.



‘집에 창이 천 개,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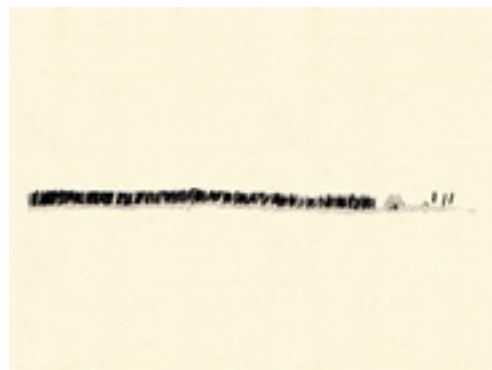
이런 넓두리로 종지(宗旨)를 삼는 것이 선과 시를 일여(一如)의 지경으로 만들거니와 과연 조사선(祖師禪)이래의 활(활)과 방(방)의 내력을 읊조리는 선객은 그대로 시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아니 시라고 하면 그 안에 반드시 선기(禪機)가 없이 시일 수 없으리라.

이 점에서 철수는 화가이자 은연중 시인이어서 그의 그림들은 한 마디 송(頌)과 서로 어우러지는가 하면 서로 방해가 되어주기까지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처지에서는 ‘가야산 대적광전’이나 만장 행렬의 장례와 같은 묵언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가야산 대적광전>



<성철 벗으신 누더기>

그의 세계는 반드시 출세간의 적요만이 화두가 아니다. 심지어 어릿어릿한 전주 노파나 횃집 생선잡이 그리고 통닭이나 개 잡는 일까지도 천연덕스럽게 시정(市井)의 화두로 잘들 놀아나고 있다.



<제정신>



<횃집에서>



<선달그림>

일찍이 민중적 미학을 지향하던 그가 그 상투성을 벗어나는 모색의 하나로 개척한 선화(禪畵)의 한 분야는 작자를 너무 빨리 애기부처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래, 철수의 판화와 판화 밑그림으로서의 요염하기까지 한 원화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이 사람이 1년 선객보다 나은 데가 있다는 생각까지 심심치 않게 나는 것이다.



그런데 천은사 부도 숲의 부도의 하나가 되는 작자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는 더 우렁찬 편력이 있어야 하고 전율의 쇠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쌍계사에서도 살더니 천은사에서도 사는 구나, 혼한 놈!’

이 이름 모르는 꽃나무 앞에서 영영 그 이름을 모르는 일이 구경(究竟)일 수도 있는 철수의 화두는 아직 더 넓은 벌판에서 기다리고 있다.



별이 따갑다. 폭 익어 누런 곡식이면 그것도 썩 좋겠구나. 정녕 풍년이 들면 농사꾼에게는  
북채가 바빠서 북이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그 북소리 요란하겠구나.

철수, 그렇지? 둥둥둥.

한마디 뒷북치건대, 헌데 철수의 소리에는 아직 찢득이는 풀 기운이 있다.

글 / 고은

출처 / 학교재 <마른 풀의 노래>